

四象醫學 病證論에 관한 考察

金 達 來* · 宋 一 炳*

I. 緒 論

西勢東漸의 變化가 多樣하던 時期에 出生한 東武 李濟馬 先生은 性理學者들의 理氣論爭을 배제하고 儒學을 四象說로 再構成했으며, 後期에 이르러 獨創적인 四象醫學說을 發明했다.

東武先生은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仲景 以後 諸家の 醫案을 바탕으로 既存의 六經辨證과 經絡學說을 비판했으며 새로운 體質醫學說을 제창했던 것이다.

四象醫學은 “人稟臟理에 有四不同 ……”¹⁾ 이라 하여 各個體가 지닌 臟腑配列의 相對性을 論했고, “心之愛惡所欲과 喜怒哀樂偏着者爲病 ……”²⁾ 이라 하여 心慾에 따라 疾病이 發한다고 함으로써 精神優位の 病因論을 論했고, 病證을 表裏寒熱로 大別함으로써 陰陽의 升降과 對待理論에 充實했다고 할 수가 있다.

비록 格致藥과 東醫壽世保元의 前篇(性理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이 哲學的 思考를 要하는 觀念的 理論³⁾ 이란 비판도 없지는 않으나 病證論의 實證的 論據는 先生의 事實的 사고 방식의 結果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에 論者는 四象醫學說中에서 獨특한 理論 體系를 형성하고 있는 病證論을 研究함으로써 證治醫學과의 차이점을 밝히려 합니다.

II. 本 論

東武先生은 “人稟臟理에 有四不同하니 肺大

而肝小者를 名曰 太陽人이오. 肝大而肺小者를 名曰 太陰人이오. 脾大而腎小者를 名曰 少陽人이오. 腎大而脾小者를 名曰 少陰人이라”⁴⁾ 하고,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而怒情이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이오. 怒情이 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하나니 ……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而哀情이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則 氣注脾而脾益盛이오. 哀情이 促急則 氣激腎而腎益削하나니 ……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而樂情이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則 氣注肝而肝益盛이오. 樂情이 促急則 氣激脾而脾益削하나니 ……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而 喜情이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則 氣注腎而腎益盛이오, 喜情이 促急則 氣激脾而脾益削하나니 ……⁵⁾ 라 하였으며, “哀怒之氣는 上升이오. 喜樂之氣는 下降이니 上升之氣가 過多則 下焦가 傷이오. 下降之氣가 過多則 上焦가 傷이니라 ……”⁶⁾ 라 하여, 人體는 先天的으로 臟腑의 大小偏在를 지니고 있으며, 臟腑의 大小로 因해서 큰 臟器는 그 기능이 더욱 實하기 쉽고 작은 臟器는 그 기능이 더욱 虛하기 쉽기 때문에 病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各 體質의 사람들은 哀怒喜樂之氣의 升降에 의해 특수한 疾病을 가지게 되고 그 治法 또한 相異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東武 以前의 東洋醫學은 哲學的 理論中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身體기능을 설명하는데 利用하였고, 정신과 육체의 同時的 觀察의 重要性만을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病理나 症狀, 治療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東醫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教室

壽世保元을 통하여 비로소 그 消息을 傳했다 할 것이다.⁸⁾

여기에 四象醫學 病理論의 獨창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 少陰人 腎受熱 表熱病論

이 表熱病證의 重要病證은 鬱狂證과 亡陽證으로 大別되며 各各 初證, 中證과 末證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 鬱狂 { 初證…太陽病 表證 因在而其人如狂者
- { 中證…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
- { 末證…陽明病 潮熱狂言 微喘直視者
- 亡陽 { 初證…太陽病 發熱 惡寒 汗自出者
- { 中證…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
- { 末證…陽明病 發熱 汗多者

鬱狂初證은 太陽經 表證이므로 芍歸香蘇散 川芎桂枝湯을 사용하고,

亡陽初證은 太陽傷風證이므로 黃芪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等으로 固表止汗 시키거나 升陽益氣시켰다.

鬱狂中證은 陽明病 胃家實 不更衣者로 巴豆, 獨蓼八物君子湯, 先用巴豆 後에 八物君子湯을 사용하고, 亡陽中證은 陽明病 不惡寒 反惡熱 汗自出者로 脾弱病이다.

鬱狂末證과 亡陽末證은 陽明經病으로 胃家實이나 脾弱과 같이 營衛가 俱虛하여 津液이 涸渴된 것이므로 鬱狂末證에는 獨蓼八物湯으로 回陽生津시켰고, 亡陽末證에는 黃芪桂枝附子湯, 人蔘桂枝附子湯, 升陽益氣附子湯 等の 附子를 利用하여 不足한 裏陽의 上升之力을 도와 주었다.⁹⁾

또 心身病證에 대해, “少陰人 十一歲兒의 汗多亡陽病을 治하였는데 此兒는 勞心焦思하면 素證으로 가끔 泄瀉하는 걱정이 있었고 每飯時에 滿面에 汗이 흐른다. 갑자기 하루는 頭痛, 發熱이 ……”¹⁰⁾ 라 하여 精神과 肉體의

相關關係로 因한 疾病을 論했으니, 이것은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으로 勞心焦思가 發하고 脾胃虛弱한 體質의 特性에 作用하여 泄瀉라는 素證이 發하고, 또 亡陽이라는 表病에 연관된다고 했다.

二. 少陰人 胃受寒 裏寒病論

이 胃受寒 裏寒病의 重要病證은 太陰證과 少陰證으로 區分된다.

太陰證: 口中有和. 無口渴 而有腹痛 自利者

少陰證: 口中有和. 有口渴 而有腹痛 自利者¹¹⁾

“太陰病 下利는 溫氣逐冷氣之下痢也오, 少陰病 下利는 冷氣逼溫氣之 下痢也”¹²⁾ 라 하였다.

여기에서 太陰病證의 輕症은 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藿朮寬中湯을 쓰며¹³⁾, 重症인 傷寒陰毒症은 巴豆로 癰冷積滯를 해소하고 계속해서 人蔘附子理中湯을 사용하며¹⁴⁾ 少陰病은 官桂附子理中湯을 使用했다.¹⁵⁾

藏厥證이나 陰盛隔陽證은 少陰證과 大同小異한 것으로 治療方法도 한가지이나 未病을 治하라고 했다.¹⁶⁾

또 “少陰人 十歲兒 思慮耗氣하여 每有憂愁라가 一二日則 必腹痛泄瀉 ……”¹⁷⁾ 하고 “少陰人이 喜好不定 而計窮力屈 則必煩燥也니 ……何不早用 君子寬平心乎아 ……”¹⁸⁾ 라 했으니 少陰人의 臟局自體가 腎大脾小하므로 浪喜가 많으면 火가 妄動하면서 上盛下虛證이 되므로 이것을 예방하는 方法은 自己自身이 喜好를 自制하여야 한다.¹⁹⁾

三.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

脾受寒表寒病의 重要病證은 少陽傷風證과 亡陰證으로 大別되며 이때 治法은 “清裏熱而 降表陰하면 痰飲이 自散而 結胸之證도 豫防 不成也라”²⁰⁾ 라 하였다. 少陽傷風證에는 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을 使用하며,

結胸에는 先用甘遂하고 荆防導赤散을 쓴다.²¹⁾

亡陰에는 身熱 頭痛 泄瀉

身寒 腹痛 泄瀉의 두가지가

있으며 身熱 頭痛 泄瀉의 亡陰에는 猪苓車前子湯, 荆防瀉白散을 使用하고, 身熱 腹痛 泄瀉의 亡陰에는 滑石苦參湯, 荆防地黃湯을 用한다.²²⁾

또 “少陰人 十七歲 女兒 素證이 間有悖氣하며 食滯 腹痛矣러니 ……”²³⁾ 하고 “又見 少陽人 十餘年 腹痛患苦 …… 每起痛時에 急用 滑石苦參湯 十餘貼하고 不痛時에 平心靜慮하고 恒戒哀心怒心하였다”²⁴⁾ 라고 했으니 少陽人의 脾大腎小한 體局의 虛點을 補完하기 爲해 上升之氣를 警戒하였다.

四. 少陽人 胃脘受熱 裏熱病論

이 病證은 胸膈熱證(裏熱便閉證과 消渴證)과 陰虛惡熱證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胸膈熱證에서 脾胃의 清陽이 上升하지 못하면 頭面上焦에 風熱이 생기게 되고,甚하면 大腸의 清陽이 上升하지 못하고, 尙차 衰盡하여 裏熱便閉가 된다고 했다.

胸膈熱證에서 裏熱便閉證에는 地黃白虎湯을 使用하였으며 消渴症에는 上消, 中消, 下消로 區分하여 涼膈散火湯, 忍冬藤地骨皮湯, 熟地黃苦參湯을 用했다.²⁵⁾

消渴病의 原因은 “病者의 胸中이 不能寬遠闊達 而陋固膠小하여 所見者淺하며 所欲者速하여 計策이 鷓突하고 意思艱乏則 大腸清陽 上升之氣 自不充足하여 日月藉困而生此病也니 …”²⁷⁾ 라 했고 精神의 攝生法은 “平心靜慮則 陽氣上升이 輕清하여 而充足於 頭面四肢也리니 此는 元氣也며 清陽也니 ……”²⁸⁾ 라 했다.

陰虛惡熱證은 消渴病中 下消와 그 輕重이 비슷하며 心身의 攝生과 服藥에 힘써도 三·四 할은 죽으며, 心身의 攝生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다고 했다.²⁹⁾

少陽人 泛論에서 “中風 吐血 嘔吐 食滯 痞滿 五證은 同出一屬 而自有輕重이라”³⁰⁾ 했으며 “吐血者는 必蕩滌剛復·偏急과 與人並驅爭塗之하고 淡食服藥하되 修養如釋道也”³¹⁾ 라 했다. 따라서 中風 吐血은 調養이 爲主가 되어야 하며 服藥은 그 다음이라 하였고, 獨活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을 用하라³²⁾ 했다.

五. 太陰人 胃脘受寒 表寒病論

重要한 病證은 太陽寒厥證(背頰表病과 長感病)과 肺燥寒證으로 大別되며, 背頰表病에는 麻黃發表湯을 使用하고, 長感病에는 慙膽散이나 寒多熱少湯을 쓴다. 太陽寒厥證은 原來 勞心焦思하여 胃脘이 衰弱해서 表局이 虛弱한 틈을 寒邪가 外被하여 正邪 相爭하는 形勢이니 寒熱, 汗出이 교차되어 나타나며, 胃脘의 虛弱한 氣運을 풀어, 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면 營血不和한 것이 治療된다고 보았다.³³⁾

또한 胃脘이 寒해서 肺燥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黃疸, 食滯, 痞滿, 腿脚無力, 虛勞夢泄, 咳嗽 等證에는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補肺元湯, 清心蓮子湯, 鹿茸大補湯, 拱振黑元丹 等を 使用하여, 潤肺清心시켜 주거나 肺陽을 도와 주었다.³⁴⁾

以上에서 胃脘表寒病의 治療는 發汗시켜 表實亡邪를 풀어주거나 潤肺清心시켜서 肺의 清陽을 升提시켜주는 藥物을 使用했다.³⁵⁾

六.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

이 病證은 肝燥熱證과 燥溢便閉證으로 大別되며, 太陰人이 “侈樂無厭하고 慾火外馳하고 肝熱太盛 肺燥太枯”³⁶⁾ 하기 때문에 發生되는 熱鬱로 因한 것이기 때문에 肝燥熱을 풀어주어야 한다.

陽明病 目疼, 鼻乾, 不眠, 汗潮出而澁閉, 陽毒發斑 等證에는 葛根解肌湯, 黑奴丸을 쓰며 燥證에는 熱多寒少湯 加味方을 쓴다.

또 裏熱瘟病者, 增寒壯熱燥澁者, 頭面項頰赤腫者(燥澁便閉證)에는 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을 用했다.

太陰人의 疾病治療에 있어서는 “無論某病人하고 恭敬其心하며 蕩滌慾火하여 安靜善心하면 病無不愈라”³⁷⁾ 하여 性情의 調節을 服藥보다 重要視했다.

七.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이 病證은 解休이라 通稱되는 것으로서 上體는 完健하고 下體는 풀린 것 같아서 行去할 수가 없다. 즉 다리에 腫痛, 麻痺之證이 없으면서 다리가 甚弱하지도 않으니 바로 弱不弱, 壯不壯, 寒不寒, 熱不熱하다.

이 病은 必戒深哀하고 遠嗔怒하며 修清淨然後에라야 用五加皮壯脊湯이니라³⁸⁾

八.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主된 病證은 噎膈症으로 “食物이 自外入而 有所妨碍曰 噎이오. 自內受而 有所拒格曰 膈이오. 朝食暮吐. 暮食朝吐曰 反胃니라... 蓋噎膈者 胃脘之噎膈也오. 反胃者는 胃口之噎膈也니 同是一證也니라”³⁹⁾ 라 하였으니, 太陽人은 肺大肝小하므로 呼散之氣가 왕성하고 吸聚之氣가 모자라서 음식물을 먹으면 다시 나오게 되어 噎膈이나 反胃症이 된다고 보았다.⁴⁰⁾

이 病證에는 “必遠嗔怒하고, 斷厚味然後에 其病이 可癒니 當用 獼猴藤植腸湯이니라”⁴¹⁾ 했다.

III. 總括 및 考察

東武先生은 醫源論에서, 靈樞에 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어서 略得外形이나 未得臟理며, 四象人 病證과 藥理는 張仲景, 주진형과 송·원·명의 제의가들이 거의 소상히 밝혔으며, 太

陰人과 太陽人 편은 先生 자신이 나머지 병증 약리를 밝혔다고 함으로써, 證治醫學理論과 역대의가들이 醫案을 토대로 하여 四象醫學이 탄생했다고 했다.

傷寒論에서 仲景先生이 논한 것은 病證으로 논한 것이고, 東醫壽世保元에서 東武先生이 논한 것은 四象人으로 논한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혼동해서 보면 안된다.

六經病證과 四象人 病證과의 關係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圖一).

(圖1) 六經病과 四象人의 比較⁴²⁾

體局 六經病證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太陽病證	○	○	○	○
陽明病證	○	○	○	○
少陽病證		▨		
太陰病證	▨			
少陰病證	▨			
厥陰病證	▨			

(*○ : 해당하는 病證.

▨ :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病證)

證治醫學에서 七情傷의 病理는 “人間的 감정(五志)은 모두 五臟에 근원을 두고 發하는 것이며, 어떤 감정이 발하는 데는 그 감정을 所臟하는 主된 臟器가 근원이 되고 餘他的 모든 장기도 이에 ㅁ여하여 相互 ㅁ련성을 갖게 된다.⁴³⁾ 또 五行相克의 原理로 하나의 情이 發하면 相克되는 臟器의 志는 傷하게 된다⁴⁴⁾ 고 했으니, 이것은 어느 하나의 臟器가 損

傷을 받으면 五行相生相克의 循環論理에서는 他臟器도 影響을 받고, 결국에 가서 모든 臟器가 影響을 받게 된다.

이에 比해서 四象醫學에서의 七情傷의 病理은 陰陽升降의 順逆動과 表裏寒熱 概念을 待對論理로 연결하여 說明했으며, 四象人이 恒常간직한 特殊한 心理狀態(恒心)가 오래도록 유지되면 커다란 疾病이 되고, 이것은 오늘날 西洋醫學에서 말하는 自律神經不調로 發生하는 心身症과 같다.

“太陽人은 哀心이 深着則 傷表氣하고 怒心이 暴發則 傷裏氣하나니 ……”⁴⁵⁾ 라 하여 性情이 衰裏病에 어떻게 作用하게 되는지를 說明하려 노력한 것을 볼수가 있으며, 少陰人은 恒有不安定之心하며 喜好不定而計窮力屈則 得少陰病”⁴⁶⁾ 이라 했으니 恒心이 과다하여 裏病인 少陰病이 되고 泄瀉 不止하면 臍下가 얼음장과 같다고 했다.

四象人의 恒心과 心身病證을 圖表로 간략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圖二).

(圖二) 四象人의 心身病證

體局	恒心	恒心尤甚即	重證	完實無病	大病
太陽人	急迫之心	八九日 大便不通해도(小便旺多則) 非殆證也라.	噎膈則 胃脘之上 焦가 散豁如風	小便旺多	噎膈
少陽人	懼心	懼心이 至於恐心하면 大病·健忘이 되며 健忘은 險證이다.	大便不通則 胸膈이 必如烈火	大便善通	大便不通
太陰人	怯心	怯心이 至於怕心하면 大病·怔忡이 되며 怔忡은 重證이다.	痢病則 小腸之中 焦가 窒塞如霧	汗液通暢	痢病 陽剛堅密
少陰人	不安定之心	咽喉病은 其病이 太重해도 爲緩病也라	泄瀉不止則 臍下가 必如氷冷	飲食善化	虛汗 泄瀉不止

(이 도표는 여러 편에 산재해 있는 四象人의 心身證에 대한 記錄을 연결시켜서 그 연관관계를 圖表化한 것이다).

위 도표(圖二)에서 心身病證의 病理機轉은 四象人의 心理狀態를 比較 觀察하여 나뉠대로의 體係를 잡으려 시도한 것으로서, 비록 그

說明이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懼心, 恐心, 怯心, 怕心 등과 四象體質屬性과의 相關關係의 概念設定이 너무 觀念的이라는 비

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心身의 상관관계를 연구, 검토하여 精神優位의 새로운 理論을 정립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다.

東武先生은 “古醫有言하되 頭無冷痛이오, 腹無熱痛이라 하니 此言은 非也라. 少陰人은 원래 冷勝則 其頭痛이 亦自非熱痛而冷痛也오. 少陽人은 원래 熱勝則 其腹痛이 亦自非冷痛 而即熱痛也니라”⁴⁷⁾ 라고 하여, 人間은 小宇宙로 頭部는 諸陽之會이고 腹部는 三陰經이 통과하기 때문에 頭無冷痛과 腹無熱通이라는 명제 아래 生理, 病理와 治法을 論한 醫學理論을 벗어나서, 各自가 타고난 先天的 體質과 陰陽升降의 順逆緩速에 따라 治療해야 된다고 했다.

따라서 四象人 病證의 治療目標은 各己 四象人의 病證에 따라 다르니,

少陰人 表病證의 治療는 表陽을 升陽시키고, 裏病證의 治療는 裏陰을 降氣시킨다.

少陽人 表病證은 表陰을 降氣시키고, 裏病證은 清陽(裏陽)을 上升시켜준다.

太陰人 表病證은 肺陽升氣(呼散之氣)를 도와주고,

裏病證은 肝燥熱을 풀어준다.

太陽人 表病證은 放深哀遠嗔怒하여 呼散之氣를 抑制시키고,

裏病證은 補肝陰하여 吸聚之氣를 도와준다.⁴⁸⁾

以上에서 四象醫學의 病證論은 證治醫學에서 論하는 隨證治之의 範位를 벗어나 先天的 臟腑構造를 根幹으로 한 體質的 偏在現象을 是正補短하기 爲해 于先的으로 精神的 攝生을 강조하고, 陰陽升降의 緩速을 調節하기 爲해 藥物을 使用할 것을 論했다.

IV. 結 論

四象醫學의 病證論을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寸脈 臟腑와 表理寒熱을 結合하여 四象人의 表理寒熱病證의 概念을 導入함으로써 陰陽升降의 緩速을 待對論理로 說明했다.

2. 證治醫學의 五志에 對한 五行相克의 循環論理를 脫皮하여, 哀怒喜樂이 表氣와 裏氣에 影響을 미쳐서 表病과 裏病을 發生시킨다고 했다.

3. 四象人의 恒心이 더 甚해지면 重證, 大病과 같은 心身病證이 된다고 했으며, 비록 이러한 機轉의 說明이 完全하지는 않더라도 東武先生이 시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全體의으로 볼때, 臟局偏在로 惹起되는 病證의 機微나 疾病의 餘弊를 除去함은 물론, 健康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少陰人은 陽暖之氣	} 가 保命之主가 된다고 했다.
少陽人은 陰清之氣	
太陰人은 呼散之氣	
太陽人은 吸聚之氣	

V. 參 考 文 獻

1.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書院, p.57, 59, 1980.
2. 金鎮成: 李濟馬의 四象說에 대한 史的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p.1, 1986.
3.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서울, 慶熙大學校 大學院, pp.21 ~ 36, 1968.

4. 尹吉永：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寶出版社,
p.2(序), 43, 172, 1986.
5. 李乙浩·洪淳用：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
出版社, p.259, 278, 279, 282, 284,
334, 1979.
6. 李濟馬：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pp.7 ~ 10, p.11, 27, 41, pp.45 ~ 48,
p.75, 76, 79, 80, 129, 130, 137,
1970.
7. 韓東錫：東醫壽世保元註釋：서울, 誠理會出
版社, p.157, 225, 233, 234, 238, 239,
287, pp.324 ~ 326, p.328, 1968.